



발레리나 문성완씨는 오는 9월부터 포르투갈 국립발레단에서 활동하게 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테크닉·연기력 갖춘 무용수 돼야죠”

젊음! 그 열정과 꿈

〈4〉 발레리나 문성완씨

발레리나 문성완(26)씨를 처음 보고 떠올린 캐릭터는 고전발레 '돈키호테'의 주인공 키트리였다. '백조의 호수'의 오데뜨나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오로라 공주처럼 청순한 역할보다는 강하고 화려한 캐릭터가 어울려 보였기 때문이다. 이국적이고 강한 외모에서 연상되는 모습이었다.

문씨는 오는 9월부터 포르투갈 국립발레단에서 활동하게 된다. 한양대와 국립발레단을 거쳐 영국에서 유학생활을 한 문씨는 최근 포르투갈 국립발레단 솔리스트로 합격했다. 국내 발레리나로는 처음이다.

문씨는 광주일보사가 주최한 호남예술제 출신이다. 화성초, 동아여중, 수피아여고 재학시절에 모두 발레 부문 최고상을 수상했다. 또 성공관대, 한양대 등 각 대학에서 주최하는 경연대회에서 금상과 최고상을 수상하는 등 어릴 때부터 두각을 나타냈다.

“사실, 연습실 가는 게 힘들 때도 많죠. 하지만 땀 흘리고 뛰고, 다양한 몸짓을 하는 게 자신의 모습을 연습실 사면을 채운 거울을 통해 볼 때면 어쩔 땀 자아도취를 할 때도 있어요. 내 자신에게 감탄하는 것, 그것도 필요하거든요. 무엇보다 무대에서 관객들의 박수를 받고 나면 너무 행복하죠.”

문씨가 처음 발레를 접한 건 초등학교 3학년 때 취미로 시작하면서부터다. 어렸을

때부터 발레를 하고 싶었던 엄마의 권유로 시작했지만 무대에 서서 박수를 받는 게 좋았고, 계속 발레리나의 꿈을 이어갔다. 한양대에서 수많은 작품의 주역으로 활동했던 문씨는 지난 2009년 국립발레단원이 됐지만 7개월만에 그만뒀다.

“국립발레단에 들어가서 좋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국립발레단이 정통 클래식 발레에 치중하다보니 조금씩 답답함을 느꼈어요. 대학 때도 모던발레 작품을 많이 했었고, 중학교 때부터 발레와 함께 현대무용을 했던 터라 그 자유로움 때문에 갑갑함을 느꼈죠. 제 자신에 대한 한계 같은 것도 느끼구요.”

“유럽 발레단에서 오디션을 보면서 기본적인 테크닉은 자신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출신 무용수들은 어릴 때부터 어찌보면 조금 강압적이라 할 정도로 교육을 받았어요. 선생님들도 무섭고, (웃음). 대신 기본기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죠. 반면 서양애들은 자유분방해서 인지 자기 표현력이나 감정을 표출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죠. 제가 많이 배워야 할 점이기도 하구요. 테크닉, 연기력 모두 갖춘 멋진 발레리나가 돼야죠.”

9월부터 포르투갈 국립발레단에 합류하는 문씨는 앙상블이 아닌, 솔리스트로 계약을 마쳤다. 월급은 350만원 수준이며 식

국내 첫 포르투갈 국립발레단 솔리스트 합격

호남예술제 3연속 최고상... 국립발레단 거쳐

국립발레단을 나온 문씨는 지난해 영국 런던으로 날아갔다. 언어 연수를 하면서 영국에서 활동하는 발레단의 워크숍에 참여하고 무용 실기를 주로 가르치는 “The place”에서 발레, 재즈, 현대무용, 아프리카 춤 등 다양한 춤을 배웠다.

올해부터는 세계 각국 발레단의 오디션에 도전했다. 유럽의 경우 보통 1~4월이 오디션 시즌으로 이력서와 사진, 동영상 등을 제출하면 1차 합격자에 한해 실기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문씨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 등 유럽 각국 발레단의 문을 두드렸고, 이번에 합격증을 받았다.

사비, 공연수당 등은 따로 지급받는다.

“제가 성격이 되게 활발해요. 스포츠도 무척 좋아하죠. 노는 것도 좋아하구요. 런던에서 다국적 무용수들과 함께 연습실을 사용할 때의 흥분을 잊을 수 없어요. 새롭게 시작하는 포르투갈 생활에서도 또 다른 흥분을 만끽하고 싶어요.”

문씨는 “솔직히 춤에 미쳐서, 정말 위대한 발레리나가 되겠다” 이런 꿈을 안다고 했다. 대신 그런 압박 보다는 “자유롭게 즐기면서 춤을 추고 싶다”고 했다. 또 맛있는 작품을 만드는 안무가와 지도자가 되고 싶은 꿈도 함께 꾸고 있다고 말했다.

‘에펠드 목표’ 초대전

16일까지 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



이매리 'Absolute Space'

목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목포대 미술학과 졸업생 미술그룹인 ‘에펠드 목표’는 5~16일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에서 초대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강희주·공옥희·김계진·김금남·박동근·박동선·박석규·박성우·박인희·박일정·변재현·서재철·선명주·손준호·송일석·신지현·이매리·이호국·조수경·조영호·하철경씨 등이 참여한다.

이매리씨는 규칙적인 배열에 따라 정사각형의 칸을 설치한 뒤 맨 앞에 구두를 놓아 사물의 물성과 공간의 조화를 형상화한 작품을 전시한다.

한편 에펠드 목표는 박석규 목포대 명예교수를 중심으로 지난 1995년 결성된 단체이며, 프랑스 창립전을 시작으로 일본 등지에서 초대전을 여는 등 국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또 매년 광주, 목포, 순천, 고흥, 무안, 함평 등 광주·전남 지역 순회전도 열어 지역의 대표적인 미술 단체로 성장했다. 문의 062-222-8053.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8~12일

‘학교에 간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으로 아이들 상상력을 키워주세요. 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오는 8일~12일 교원연수 프로그램인 ‘학교에 간 스토리텔링’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34명의 초·중·고교 교사가 참여해 학교 교육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기법을 연구하고, 다양한 문화 현장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볼로초교 서준호 교사가 ‘놀이와 연극을 활용한 창의적 수업’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전남대 정경은 교수가 ‘학교 현장에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이유’를 주제로 강의를 한다.

또 문화공통체 아유름 김혜일 대표, 전남대 나경수 교수, 아트로드 박성현 예술감독, 미술생태연구소 백종욱 소장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 문의 062-670-576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DJ ‘인동초 삶’ 무대 오른다

전남문화예술재단 20일 국악 뮤지컬 무료 공연

민주화를 위해 한 생을 인동초처럼 살았다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소재로 한 국악 뮤지컬이 처음으로 무대에 오른다.

전남문화예술재단은 오는 20일 오후 5시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김 전 대통령의 서거 2주년을 맞아 DJ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다룬 ‘인동초처럼 살리라’를 공연한다.

제작비 1억원을 들인 이번 공연은 전남도립국악단 소속 무용부와 창작부, 기악부를 비롯해 각원 배우와 어린이국악단 등 모두 100여 명이 출연하는 대형 무대다.

주인공 DJ역은 임방울국악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도립국악단 단원 박준맹씨가 맡았으며 뮤지컬 작곡을 주로 해온 강미진씨가 연출로 참여했다. 또 시나리오에는 오페라 전문 극본작가인 이강윤씨가, 안무는 흥보탈씨가 각각 맡았다.

작품은 민주화를 열망했던 세 친구가 서로 다른 길을 걷다 DJ의 서거 2주기를 앞두고 25년 만에 만나면서 시작된다. 공연은 거친 시대가 만들어준 소명, 어둠의 진창에서 등 총 7장으로 구성됐으며, 김 전 대통령이 살아왔던 고난과 역경의 삶을 파노라마 식으로 담아냈다.



한편 1986년 도립국악단이 창설된 이후 순수 국악뮤지컬이 공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이번 공연에는 이희호 여사와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한다. 이번 작품은

이후 전남 동부권 지역에서도 공연될 예정이다. 전석 무료. 문의 061-280-580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www.geums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0년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계절별미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30년 전통의 한정식 33,000원부터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기본 3인상 이상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moviehelic

무더운 여름 시원한 극장에서 즐거운 영화와 함께 하세요

상무점		하남점	
1관 마당울나온암담 (전체)/7광구 (15세)	1관 7광구 (15세)	1관 7광구 (15세)	최고급관
2관 퍼스트 어벤저 (12세)/리오 (전체)	2관 헤리포터와 죽음의 성물2 (전체)/리오 (전체)	2관 7광구 (15세)	
3관 7광구 (15세)	3관 퀵 (15세)	3관 7광구 (15세)	
4관 7광구 (15세)	4관 7광구 (15세)	4관 기생령 (18세)	
5관 헤리포터와 죽음의 성물2 (전체)	5관 퍼스트 어벤저 (12세)	5관 7광구 (15세)	
6관 7광구 (15세)	6관 명탐정 코난: 침묵의 15분 (전체)	6관 퀵 (15세)	
7관 퀵 (15세)	7관 고지전 (15세)/기생령 (18세)	7관 마당울나온암담 (전체)/퀵 (15세)	
8관 고지전 (15세)	8관 마당울나온암담 (전체)/퀵 (15세)	8관 헤리포터와 죽음의 성물2 (전체)	
9관 퀵 (15세)/명탐정 코난: 침묵의 15분 (전체)	9관 고지전 (15세)	9관 트랜스 포머3 (12세)	
10관 기생령 (18세)	10관 7광구 (15세)	10관 7광구 (15세)	

조조 영화한편 어떠세요? /오남최대주장 / www.cinuso.co.kr
3,000원 저렴하게, 선착순 30분께 이벤트 팝콘 증정

MEGABOX

구. 런던역국사거리
☎ 1544 - 0600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치타워, 황금주치빌딩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MEGABOX

북구보건소 건너편
☎ 1544-0070

CINUS

씨너스전대대D(4K)상영!!